

제3절 불교유적과 문화재*

우리나라 고대미술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불교미술이다. 그리고 오늘날 남아 있는 고대의 유적·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불교적인 조형 미술품이다.

불교미술은 불교의 교리와 신앙을 기초로 하여 불교적인 소재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조형화한 미술을 말한다. 이러한 불교미술은 동양미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미술작품 대부분이 부처가 말한 심오한 교설을 따르고 있고, 교단의 형성과 그에 부응한 신앙의 시각적 표현으로 점차 활기를 띠어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전남지역의 불교미술 유적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백제시대의 것은 없고 통일신라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순천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규(可規)가 송광사의 광원암(廣遠庵)을 514년(백제 무령왕 14)에 창건하였고, 선암사의 창건기에 529년(백제 성왕 7) 아도화상(阿道和尚)이 비로암을 세웠다고 전해오지만,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뚜렷한 유적은 없다. 본격적인 불교문화가 순천에 유입되어 정착된 시기는 통일신라 후반기부터이며, 유물로는 불상과 석탑 등 석조물만 남아 있다. 고려시대 불교문화는 송광사에 있는 고려고종제서(高麗高宗制書 : 국보 제43호)·고려문서(高麗文書 : 보물 제572호)와 공예품 몇 점을 제외하면 거의 석조물이다. 조선시대 불교문화는 송광사·선암사·정혜사·동화사·향림사 등 현존 사찰에 다양한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있다.

* 제3절은 최인선(崔仁善) 집필임.

